안철수 지지했던 전인권 초청…통합을 노래하다

기념식 이모저모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는 무려 5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정부기념식이기도 한 5·18기념식장 곳곳에선 '이 것이 바로 기념식이다', '그동안 쌓인 한이 풀렸다'는 탄성이 쏟아졌고 눈길을 끄는 광경도 한 둘이 아니었다.

전인권 '상록수' 열창에 박수

○…기념식장에 가수 전인권이 등장했다.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기간 공개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씨는 이날 무대에서 '상록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했다.

참석자들은 전인권씨의 등장과 그가 부른 노래를 보면서 정부가 국민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전인권씨는 열창했고 대선 기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했던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보답했다. 전인권 등장이 곧 하나의 기념식을 연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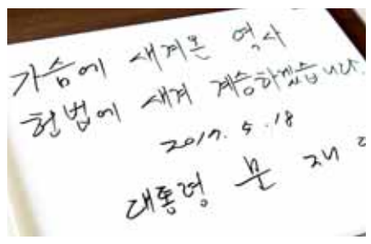
부상자회, 주먹밥 나눔 행사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부상을 입은 회원들의 모임인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내 민주의문 앞에 천막을 치고 '5·18 기념식 후 주먹밥 나눔 행사'를 열었다.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운 시민군들에게 시민들이 주먹밥과 등을 건넨 것을 재현하며 518 정신의 하나인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단체는 3000인분을 준비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자원봉사자들도 노란 조끼를 입고 주먹밥을 만들며 5·18단체를 도왔다. 광주시민이 만든 주먹밥, 돼지고기가 담긴 접시를 받아든 참석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밝았다.

초대장 없어도 시민 누구나 참석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에서의 '열린 경호'는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냈다. 초대장이 없어도 소지품 검사를 하고 보안검색대만 통과하면 누구나 입장가능했다. 곳곳에서 '와, 좋다. 대통령이 바뀌니 이런 것도 달라지네'라는 반응과 함께 '이러다가 우리 대통령 다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도 나왔다. 열린 경호가 펼쳐졌지만, 과도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사전에 수거가 이뤄졌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기념식보다 평화롭고 질서있게 기념식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참석자들에게서 한목소리로 나왔다.



文대통령 방명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립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진수기자 jeans@

임종석 실장, 故이한열 모친 손잡고 '임 행진곡' 제창 뭉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손을 꼭 붙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TV캡쳐〉

누리꾼들 "감동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와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는데, 기념식장 맨 앞줄에 선 임 실장은 이날 배 여사의 손을 잡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배 여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한 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다. 이한열 열사는 1987년 6월 9일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한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이한열 열사는 국립 5·18 민주묘지 옆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됐다.

이를 알게 된 누리꾼들은 "감동이다. 어머님이 위로되셨을 것 같다", "어머님 기분 좋아 보이신다", "감동적이네", "친어머니인 줄 알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들 "5·18 교육 전국화"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5·18 전국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교육감들도 전국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요원했던 5월 정신을 전국에 알리는 교육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이석문 제주시교육감은 18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교육 전국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전국 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계기교육을 실시토록 권장하는 한편, 5·18 인정교과서와 5·18 교육 참고용 도서가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학교에 파견하고 있는 '오월 민주 강사단'이 전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5·18 관련 현장체험학습 코스 개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학생희생자 18명(15개 학교)을 제주 4·3, 부마항쟁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의 학생 희생자들과 연계, 희생주 추모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대전 70대 15년째 1인 시위

○…일반 참석자 중에선 단연 눈길을 끈 인물은 대전에서 온 신현규(72)씨였다. 그는 이날 기념식장 앞에서 5·18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씨가 새겨진 천조각을 입고 시민들에게 "날마다 대전에서 광주로 와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것도 무려 15년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매일 '5·18 민중항쟁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광주역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걸으며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5·18 민주묘지에 참석해 "최근 전두환이 자신이 5·18 민중항쟁의 피해자라고 쓴 '전두환 회고록'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군인이 국민을 죽이는 잔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5·18의 진실과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을·이종행·김한영·전은재기자 ej6621@

기념식 물들인 '상록수' 18일 오전 제37주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가수 전인권씨가 상록수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6 해짐 19:32 달뜸 01:09 달짐 12:18

벌써…무더위

낮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날씨를 보이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4/30	보 성	맑음	11/28
목 포	맑음	15/25	순 천	맑음	15/30
여 수	맑음	17/28	영 광	맑음	11/27
나 주	맑음	11/29	진 도	맑음	14/23
완 도	맑음	14/27	전 주	맑음	13/28
구 례	맑음	11/30	군 산	맑음	13/26
강 진	맑음	11/29	남 원	맑음	11/29
해 남	맑음	10/28	흑산도	맑음	14/22
장 성	맑음	11/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먼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먼바다(동)	남서~서	0.5	남서~서	0.5
	먼바다(서)	남서~서	0.5	남~남서	0.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07	07:32
	13:15	19:54
여수	09:12	02:26
	20:58	15:11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피부질환	보통

◇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14/29	16/30	15/30	17/26	16/25	14/26	13/27